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추수감사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지금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도 주님의 희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비틀거릴 때면 주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어 우리를 떠받쳐 주셨고, 마음이 아파 울 때에는 품이 되어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삶은 든든합니다.

주님, 단순하고 무조건적이고 쾌활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큰 일을 꿈꾸기보다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3:23-24	인도자
♠ 교 독 문	65. 감사절(2)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09. 논밭에 오곡백과	다함께
어린이 설교	한 몸	이성운 전도사
성경봉독	시103:13-18	인도자
찬 양		찬양대
말 씬	그저 감사할 따름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을 상으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늘 기뻐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용광로에 넣겠습니다. 어둠이 밀려올 때에도 영원한 중심이신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빛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찬양의 가을걷이	성서의 평화(8) : 김기석 목사
지휘 : 윤주원 권사/안홍숙 집사	기도 : 윤수진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노순옥 권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조문규 집사

<b>11월</b>	영접위원	방문성	안길상	박재실	박혜경	이형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중수	김훈동	박효선	백혜숙

##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

### 탐욕에 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에서 가이사라의 감독 바실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는 마지못해 세상을 부인하고서 재산 중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원로원 의원에게 “당신은 원로원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도사가 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뿌리가 남아 있으면 가지들이 솟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서, 영혼에게서 모든 악의 뿌리인 탐욕을 잘라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이처럼 탐욕의 뿌리를 뽑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원 내에서는 극히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걱정하는 일까지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서, 재산 중 일부를 남겨 보관하려는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탐욕 때문에 문동병에 걸린 게하시를 경계로 삼고서, 세상에 있을 때에도 소유하지 않았던 돈을 쌓아두려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매어 죽은 유다를 기억함으로써, 이미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오셔서 탐욕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을 발견하시고서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고 말씀하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노염에 대하여

우리의 네 번째 싸움은 노염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마귀의 치명적인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한,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식별할 수 없고, 영적 지식을 성취할 수 없고, 선한 의도를 이룰 수 없고, 참된 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의 지성은 참되고 거룩한 빛의 관상에 대해 여전히 무감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 눈이 근심(노염)을 인하여 쇠하며”(시 6:7)라고 말합니다. 또 비록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롭다고 여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노염)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전7:9)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15:1)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깨어 지키는 마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1:20). 또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예의와 품위를 획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잠12:25).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완전함에 이르고 영적인 길을 바르게 추구하려 한다면, 죄악된 분과 노를 멀리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4:31).

바울은 ‘모든’이라고 말함으로써 노염을 발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타당한 것이라고 간주할 구실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형제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당신이 그의 잘못을 고쳐주거나 벌주려 한다면, 당신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고쳐 주려는 병에 당신 자신이 감염되거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3)는 복음서의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노염은 영혼의 눈을 멀게 하며, 의의 태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금으로 된 것이든 납으로 된 것이든 간에 얇은 판으로 두 눈을 가리면,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방해를 받습니다. 노염을 발하는 능력을 본성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정욕적인 생각이나 방종한 생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려 한 것은 자신의 정념 및 악한 생각에 대해서 화를 내며, 그것들의 제안을 실천에 옮겨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계속)

—중세 초기의 수도사인 존 카시안의 글입니다.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 원 하 신 주 감 사 모 든 것 주 심 감 사  
 응 답 하 신 기 도 감 사 거 절 하 신 것 감 사  
 길 가 에 장 미 꽃 감 사 장 미 꽃 가 시 감 사

지 난 추 억 인 해 감 사 주 내 결 에 게 시 네  
 해 처 나 온 풍 랑 감 사 모 든 것 채 우 시 네  
 파 스 한 파 스 한 가 정 희 망 주 신 것 감 사

행 기 로 운 봄 철 에 감 사 오 로 운 가 을 날 감 사  
 아 픔 과 기쁨 도 감 사 ' 절 망 중 위 로 감 사  
 기쁨 과 슬 픔 도 감 사 하 늘 평 안 을 감 사

사 라 진 눈 물 도 감 사 나 의 영 혼 평 안 해  
 축 랑 못 할 은 혜 감 사 크 신 사 랑 감 사 해  
 내 일 의 희 망 을 감 사 영 원 토 록 감 사 해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환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찬양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박병선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권혁순 박혜경 김중수 이순정 구명자 장영숙 박규석 박경선  
 임승동 백혜숙 이은옥 박영희 김희진 박홍재 방민 김지윤 김지호  
 박영숙 김금순 정복순 김용진 이성운 김재흥 최희영 임고운 무명1

###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장재영 김재영 김명순 이동천 김남중 오복순 왕수명  
 김영한 이희균 서정순 전영규 김경수 이증자 김창경 박범희 박미영

### 감사헌금:

김재흥 이재문 하은주 안정숙 백혜숙 류건형 이주은 박애순 권미숙  
 김필순 오진훈 노순옥 안길상 이형숙 문복순 최현옥  
 문경새재를 넘은 사람들 무명1

생일감사헌금: 이창석 박수경 배삼순 조항범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누계- 8,750,000원)

##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연합속회	송임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박홍엽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권명자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구명자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김성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추수감사주일** :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내적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2. **찬양의 가을걷이** : 오늘 오후 집회는 찬양대와 참빛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3. **세례입교 신청** : 금년도 성탄절에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교육에 참여하십시오.
4. **환경부** : 생명 세상 지킴이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 예정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적어 친교실과 본당 입구에 마련된 통에 넣어주십시오.
5. **수험생** :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 - 하진솔, 윤 윤, 김서현, 박정환, 강승모, 박인혜, 임선빈
6. **신앙실천** : 금년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많이 웃고,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 속

\* 헌화 : 조병무 장로 (조기원 장로 추모)

### <새교우 소개>

2634 이경화 소속: 4여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